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진주영¹, 하규수^{2*}

¹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²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A Study on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the Old Aged on the satisfaction of the life

Ju-Young Jin¹, Kyu- Soo Ha^{2*}

¹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²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가 현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주변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5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결측치가 많은 8부를 제외한 442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가 정서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신체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 기술/노무직, 정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가 신체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소득, 정서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가 경제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사회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정서적 노후준비가 사회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노년기의 수준에서 향상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장년층 시절부터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factors for the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on the current satisfaction of life of the middle-aged. A survey of middle aged people living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was conducted. The data from 442 subjects were collected from 450 questionnaires excluding 8 incomplete datasets and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emotional and economical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had influences on the emotional satisfaction positively. Second, the educational background, jobs for technician/working, emotional and physical preparations for old ag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hysical satisfaction. Third, the household income, emotional and economical preparation for the old ag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economical satisfaction. Fourth, sex, emotional preparations for old ag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relation satisfaction. The research results suggested that the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should be arranged from the middle-aged years because it is difficult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life for old age in the elderly.

Keywords : Economical preparations, Emotional preparations, Middle-aged, Physical preparations, Satisfaction of life

1.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였고, 오는 2017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그로부터 9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1].

*Corresponding Author : Kyu-Soo Ha(Hoseo Univ.)

Tel: +82-2-2059-2331 email: ksh@hoseo.edu

Received October 23, 2015

Accepted February 4, 2016

Revised (1st December 10, 2015, 2nd December 22, 2015)

Published February 29, 2016

이처럼 노인인구 비율이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미흡하여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당수는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노화에 따른 건강상태의 악화, 노년기의 무위와 무료, 사회생활의 단절로 인한 소외와 고독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2].

지난 2013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8.0%로 가장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3]. 노인들의 자살 증가율도 OECD 국가 중 1위인데, 인구 10만명당 자살 노인이 2000년 34.2명에서 2010년 80.3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4].

고령화는 이처럼 노인빈곤과 노인자살 등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고, 개인의 삶에서도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등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 노년기에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적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년기부터 미리 노후준비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연구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건강, 소외, 경제, 가족문제 등에만 치중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삶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여가생활과 안락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같은 내용이 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6].

또한 노화불안은 중년기 성인들이 느끼는 노년기 적응 관련 요인으로 건강한 노년기 진입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중년의 노화에 대한 생각이 노년기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년기로의 건강한 전이를 위해서는 중년의 노화불안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중년의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통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노후준비 정도나 관련 요인 등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년기의 노후준비가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노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중년기부터 노후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중년층 인구의 증가와 조기퇴직의 증가 등으로 중년기부터 노후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후에 대한 준비는 노년기 이전인 중년기에 미리 이루어져야 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중장년기

중년의 정의를 사전적 개념으로 살펴보면, 중년(中年) 또는 중장년과 장년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인생에서 청년에서 노년사이의 단계를 이르는 말로서 콜린스 사전에 따르면 중년은 일반적으로 대략 40~60세 사이 나이의 사람으로 간주한다.

평균 수명이 50세가 채 되지 않았던 1900년대에는 중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인간의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자녀의 수가 감소하면서 개인이 중년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년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7].

Havighurst(1972)는 중년기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그 절정에 달함과 동시에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도 느끼는 시기 그리고 개인적 요구나 필요성뿐만 아니라 유기체 내부의 변화와 환경적 압력에 의해 사건이 유발되는 시기라고 하였다[8].

본격적으로 노화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자각하는 중년은 신체변화 및 건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다가올 죽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시간조망의 변화를 경험한다. 자신의 지난 삶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 새로운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이다[9].

이전까지는 외부와의 적응과 사회적 성공, 인정에 더 관심을 가졌다면 중년기에는 내적 자아에 대한 관심과 성찰이 많아지는 개별화(individuation)가 진행된다고 한다[10].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연속적인 발달과 변화를 겪으며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생애주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중년기와 노년기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노년기를 직업적 경제활동에서 물러나고 상대적으로 신체적 활동이 둔화되며 지적능력이 퇴보하고 모든 감각이 둔화되는 시기로 본다면,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는 노년기 이전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이유로 중년기부터의 노후준비는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이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의한 구분보다는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는 노년기에는 노후준비가 어렵다고 보고, 노년기와 구분시켜 경제활동 중에 있고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도 활동적인 시기 즉 노년기의 직전시기 즉 노후준비가 필요한 시기를 중장년기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2 노후준비의 타당성 및 노후준비 유형

2.2.1 노후준비의 타당성

2011년 사회조사(통계청, 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40.6%), 질병 등 건강문제(37.8%), 소일거리가 없음(6.2%), 직업이 없거나 고용의 불안정(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비추어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화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노후문제를 당사자나 가족이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둘째, 노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예방하고 노화로 인한 건강의 악화, 의료비 증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셋째, 본인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 친지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넷째, 스스로 노후문제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본인에게 맞는 노후 계획과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노후준비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창제(2008)에 따르면, 경제적 노후준비가 전혀 안된 중 고령자의 비율은 25.6%이며, 남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 현재소득인식, 주택소유, 거주 지역, 전반적 생활여건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11].

김수현(2009)은 30대-50대 성인들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노후에 대한 준비차원에서 노후생활자금 설계와 준비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의사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였다[12].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30대부터가 좋다”고 보고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노후준비는 30대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13,14].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정도는 학력에 의해서도 차이를 보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성과 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 선택 가능성, 그리고 부수적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15]. 또 학력이 높을 경우 빈곤 확률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여 노후준비에 적극적이라고 하였다[16].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처럼 노후준비는 30대부터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며,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 건강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노후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2.2 노후준비 유형

노후불안은 신체적 건강이나 경제에 대한 불안 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힘의 상실에 대한 차원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4가지 차원(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초월영성적 차원)과 3가지 유형(노후과정에 대한 두려움, 개인적 편견에서 비롯되는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지각을 포함한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한다[17].

따라서 이들 노후불안에 대비하는 노후준비 유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노후대책을 세울 때 건강 문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12]. 이러한 성공적 노후준비를 위한 요소 중 건강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이소정(2009)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건강이었으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신체적 준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운동, 식생활관리, 금연, 금주, 건강보조식품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하였다[18].

강영숙(2005)의 연구에서는 노후 생활에서 예상되는 문제로 건강, 경제력 상실을 들었는데 건강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평상시 건강을 위한 준비는 다소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신체적 건강을 위해 외식을 줄이고 체중을 조절하고 과음, 흡연을 줄이거나 삼가며 꾸준한 건강관리에 힘쓰고, 평소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별하여 섭취하고 있어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소극적인 건강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취업여성과 전

업주부의 건강관리에 있어 취업여성이 사회활동으로 인한 과음과 흡연율이 많아 전업주부보다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둘째,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박창제(2008)는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인생주기(life cycle)에서 후기로 갈수록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축소되는 시기에 확대된다고 하며, 특히 소득이 감소되는 시기나 은퇴기에 노후 소득에 대한 준비는 큰 과제이며 불확실한 미래의 노후를 위한 재무적 준비(financial preparation)는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하였다[11].

이신영(2009)은 개인이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갖추지 못한다면 노후의 생활수준은 중·장년기에 비해 더욱 낮아지고 심지어는 빈곤층으로 전락되어 국가의 부담을 과중시키게 된다고 하였다[15]. 따라서 노후에 충분한 소득 및 노후준비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말순(2004)은 노후의 소득수준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계문제, 영양상태, 건강, 사회활동, 여가활동 유지, 품위 유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노후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노인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자립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로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14].

셋째, 정서적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인간이 노화를 자각하는 데는 차이가 있지만 대개 50세를 전후하여 자신이 쇠퇴기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60세가 넘으면서 자신의 노화를 실감하게 된다고 한다.

노년기가 되면서 신체적 체력 감소와 질병이 증가하고 기억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며, 직업 은퇴로 사회적 인간관계망이 좁아지고, 자녀들의 독립으로 외로움이 더해지는가 하면, 배우자나 동료와의 사별, 또는 자식, 친지와의 사별 등을 통해 공허감과 허탈감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정서적 노후준비에 관해서는 노후에 심리적 안정감으로 취미 및 여가활동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하였다[12,18]. 노년기 심리적 불안을 탈피하기 위해 중년기 때부터 사회적 관계망에 있는 직장동료, 가족, 친지,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고 바람직한 취미, 여가, 봉사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과 교육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생활에 활력을 얻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20,21].

2.3 삶의 만족도

최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심리학, 의학, 사회복지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심리적 안녕감(psychology well-being),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유사한 개념으로 다루어 지거나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3].

고영준(2008)은 행복한 삶에 대한 만족정도인 삶의 만족도는 생활만족도, 행복감, 노년기의 적응 등 여러 개념들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의 개념정의 역시 학자마다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갖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만족감 혹은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합치에서 오는 만족감으로서,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생목표나 욕구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24].

이러한 선행연구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여러 개념정의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의 삶의 만족도의 개념은 생활만족도의 개념과 유사개념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내용 중 심리적인 분야인 불안감, 걱정거리, 우울감, 패배감이 없는 상태나 주변인들과의 관계 즉 형제, 친척,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만족감, 또한 자신의 외모나 활력상태, 활동상태 등 주관적인 만족감 등 종합적인 여러 관점에서의 만족도를 삶의 만족도로 정의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2.4 노후준비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 선행연구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명숙(2005)은 삶의 만족도는 각자의 삶에 있어 관심의 초점이 되는 영역들에 대한 만족감으로 수렴되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25].

박선희(2010)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결과에서 노후준비계획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이희종(2008)은 노후 소득준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개인소득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27].

서울 수도권지역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8].

조선희(2010)는 남성노인의 노후준비도와 노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신건강이 노후준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주었으며[29], 임경자(2002)는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30].

임귀숙(2007)은 사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통해 노후생활 준비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여가활동이나 정기적인 건강검진, 규칙적인 운동 등을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고하였다[31].

외국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정신적 고독에 노출될 우려가 큰 노년기에 사회적 관계는 노인으로 하여금 소속감과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게끔 하여 정서적 제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노인의 생활과 행동수행에 지침을 제공하여 노인의 정감과 행동에 선명한 목적의식을 주고 삶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완충내지 경감작용을 하며 결국 노후를 건강한 삶으로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32-34].

이와 같이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는 경우, 즉 노후준비수준이나 계획이 잘되어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면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3.1.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중년기의 노후준비가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연구목적에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는 정서적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는 경제적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는 신체적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는 사회관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수행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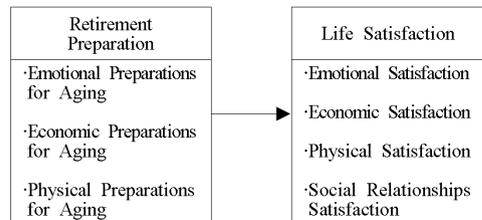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주변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노인관련 전문가, 노인복지기관 전문지도자에게 설문내용에 대해서 1차 자문을 받았으며, 참조한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비조사를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조사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 총 500부를 배포하여, 45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수거된 설문지 가운데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거나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42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3.3 측정방법

노후준비도는 강유진(2005), 김주성(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조하여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정서적 준비 요인 등 총 21문항으로 측정하였다[20,33].

본 연구에서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각각 “매우 그

렇지 않다 = 1”부터 “매우 그렇다 = 5”에까지 5점 척도로 환산하였고,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노후준비도를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김수봉(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조하여 신체상태와 기능, 대인관계, 경제생활, 정서적 요인 등 총 14문항으로 측정하였다[34]. 본 연구에서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각각 “매우 그렇지 않다 = 1”부터 “매우 그렇다 = 5”에까지 5점 척도로 환산하였고,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측정하였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절차는 기초통계분석, 설문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분석, 가설검증 순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와 분석방법에 의해 처리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빈도, 표준편차,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둘째, 본 조사에서는 설문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와, Varimax 회전방식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으로 설정된 각 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조사 표본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특성 중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38.91%, 여성이 61.09%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45세 미만이 20.36%, 46 ~ 50세 미만이 28.05%, 51세 이상이 51.58%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45.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고졸 30.21%, 대학원 이상이 18.99%, 중졸이 5.03%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전체 조사대상자 중 78%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미혼 17.46%, 이혼 및 사별이 4.54%로 나타났다. 종교 상태는 기독교가 전체 조사대상자 중 38.36%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무교 29.91%, 불교 14.61%, 천주교 13.70%, 기타 3.42%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Variables	Frequency	%
Gender	Male	172	38.91
	Female	270	61.09
Age	under 45	90	20.36
	46 - 50	124	28.05
	more than 51	228	51.58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22	5.03
	High school graduate	132	30.21
	University graduate	200	45.77
	More than Graduate School	83	18.99
Marital Status	Single	77	17.46
	married	344	78.00
	Divorce/Widowed	20	4.54
Religion	Christianity	168	38.36
	Catholic	60	13.70
	Buddhism	64	14.61
	Not Religious	131	29.91
	Etc	15	3.42
Job	Office	90	20.83
	Technician	61	14.12
	Sale/Business owners	65	15.05
	Operation/Professions	69	15.97
	Unemployment/Etc	147	34.03
Household Income	under 250	159	43.44
	251-400	93	25.41
	more than 401	114	31.15
Children	none	87	19.73
	1 person	55	12.47
	2 person	244	55.33
	more than 3	55	12.47

직업은 무직 및 기타가 전체 조사대상자 중 34.03%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사무직 20.83%, 경영 및 전문직 15.97%, 판매 및 자영업 15.05%, 기술직이 14.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250만원 이하가 43.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401만원 이상이 31.15%, 251~400만원이 25.41%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에는 2명이 55.33%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자녀가 없는 경우가 19.73%이며, 자녀가 1명인 경우와 3명 이상인 경우가 각각 12.47%로 나타났다.

4.2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가설의 명확한 검증을 위해서 척도가 제대로 구성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척도의 타당도 분석과 신뢰

도 분석이 필요하다.

타당도 분석은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으로, 신뢰도 분석은 가장 많이 쓰이는 내적일관성 검증의 Cronbach's α 계수로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은 Kaiser 규칙이 있는 Varimax 직각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고유치 1.0이상, 요인 적재량 0.5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신뢰성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의 값이 0.6 이상일 경우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2.1 노후준비 요인분석

노후준비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부하량이 0.4 이상인 변수 13개를 추출하였다.

이 13개 변수를 요인분석한 결과 Scree test와 Eigen 값 1.0 이상인 요인과 각 문항의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를 바탕으로 3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노후준비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각 문항들이 총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며, 각 요인의 특성에 따라 요인 1을 정서적 노후준비, 요인 2를 경제적 노후준비, 요인 3을 신체적 노후준비라 명명하였다. 설명된 총 분산은 58.41%로 나타났다.

4.2.2 삶의 만족도 요인분석

삶의 만족도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부하량이 0.4 이상인 변수 14개를 추출하였다. 이 14개 변수를 요인분석한 결과 Scree test와 Eigen 값 1.0 이상인 요인과 각 문항의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를 바탕으로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각 문항들이 총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며, 각 요인의 특성에 따라 요인 1을 경제적 만족, 요인 2를 정서적 만족, 요인 3을 신체적 만족, 요인 4를 사회관계적 만족이라 명명하였다. 설명된 총 분산은 74.8%로 나타났다.

4.2.3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용될 변수들과 선택된 문항의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내적일치성(internal consistency)을 가지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인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Achenbach(1991)가 제시한 신뢰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 Factor analysis of the Retirement preparation

Item	Factor1	Factor2	Factor3
It has always been involved in meetings in order to maintain social relationships.	0.760	0.139	0.140
Meeting with friends there and always involved.	0.726	0.138	0.052
Retirement pla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0.714	0.168	0.095
Leisure and hobby plans to participate actively.	0.697	0.198	0.132
There is always a relative who can speak your mind openly.	0.686	0.046	0.081
Try to avoid stress to accumulate for a comfortable life as a psychological and emotional.	0.645	0.050	0.350
It has joined the Bank Savings / savings / insurance for retirement.	0.118	0.806	0.066
The economic ready to prepare a retirement.	0.145	0.805	0.142
I think a pension is insufficient to separate joined private pension products (private pension trust / private annuity / personal pension investment trusts, etc.).	0.124	0.760	0.057
For retirement profitability and higher real estate investments.	0.134	0.626	0.089
Strive for a weight management.	0.172	0.054	0.870
The exercise for health.	0.206	0.136	0.856
Regularly subjected to health checks.	0.115	0.390	0.448
Eigen Value	3.139	2.550	1.904
% of Variance	24.148	19.617	14.648
Cumulative %	24.148	43.765	58.412

Table 3. Factor analysis of the Life Satisfaction

Item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Are you satisfied with your living expenses?	0.881	-0.133	0.154	0.111
Are you satisfied with your pocket money?	0.873	-0.169	0.156	0.151
Are you satisfied with gross monthly income for the family?	0.808	-0.133	0.175	0.242
Are you satisfied about your retirement readiness?	0.770	-0.240	0.250	0.114
How many worries these days?	-0.172	0.853	-0.093	-0.078
Do you feel depressed lately?	-0.141	0.841	-0.110	-0.188
Do you feel anxious these days?	-0.118	0.808	-0.141	-0.030
Do you feel defeated easily these days?	-0.179	0.789	-0.079	-0.221
Are you satisfied with the state of today vigor(strength, stamina, strength)?	0.200	-0.167	0.826	0.142
Are you satisfied with nowadays active(walking, climbing stairs, riding a bus, sitting)?	0.131	-0.088	0.817	0.176
Are you satisfied with your look for these days?	0.274	-0.115	0.755	0.144
Are you satisfied with the friendship?	0.201	-0.115	0.107	0.860
Are you satisfied with the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around you?	0.208	-0.199	0.101	0.842
Are you satisfied with the relationship with brothers or relatives?	0.089	-0.128	0.336	0.676
Eigen Value	3.102	2.951	2.243	2.176
% of Variance	22.158	21.076	16.022	15.544
Cumulative %	22.158	43.234	59.256	74.800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0.7이상이면 높은 신뢰성을 얻게 되고, 0.6이상일 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아래 Table 4와 같이 모두 0.6이상으로 계측되었다. 각 변수들의 신뢰도 값이 모두 높게 나타나서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Reliability verification

Division	Cronbach's α
Emotional Preparations for Aging	.824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770
Physical Preparations for Aging	.684
Economic Satisfaction	.907
Emotional Satisfaction	.875
Physical Satisfaction	.811
Soci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794

4.3 가설검증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사가 필요하다. 다중공

선성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Tolerance(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와 VIF(분산팽창지수)가 있다.

Tolerance 값이 0.1 미만이거나, VIF 값이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Tolerance 값과 VIF 값을 이용하여 두 요인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진단한 결과 두 변수 사이의 다중공선성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3.1 노후준비가 정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Table 5의 모형 1단계는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정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2단계는 통제변수와 노후준비도가 정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모형 1단계에서 무직보다는 기술/노무직($b=-.379, p<.05$)이 정서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기술/노무직보다는 무직인 경우에 정서적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정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업($b=-.357, p<.05$), 정서적 노후준비($b=.149, p<.01$), 경제적 노후준비($b=.165, p<.01$)가 정서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기술/노무직보다는 무직인 경우에 정서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가 잘되어있을수록 정서적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tirement preparation Effect of Emotional Satisfaction

Variables	Model 1		Model 2	
	b	t	b	t
(constant)	0.470	0.922	0.021	0.041
Gender	0.018	0.139	0.069	0.554
Age	-0.013	-1.688	-0.010	-1.313
Level of education	0.034	0.439	0.107	1.352
Marital Status(married)	0.110	0.479	0.185	0.820
Marital Status(Divorce/Widowed)	0.048	0.138	0.112	0.328
Religion(Not Religious)	-0.209	-1.801	-0.170	-1.482
Job(Office)	0.095	0.585	0.080	0.504
Job(Tec./Labor)	-0.379*	-2.110	-0.357*	-2.024
Job(Sale/Owner)	0.171	0.984	0.161	0.948
Job(Oper./Porf.)	0.188	1.072	0.136	0.786
Household Income	0.001	1.012	0.001	0.475
Children	0.027	0.306	0.003	0.029
Emotional Preparations for Aging			0.149**	2.832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0.165**	2.969
Physical Preparations for Aging			0.047	0.887
F	1.744***		2.590***	
R ²	0.058		0.104	
Adj R ²	0.025		0.064	
R Square Change	0.045***			

* Emotional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Reverse coding

* Standard : Gender(M), Marital Status(single), Religion(Y), Job(Unemployment)

* p<.05 **p<.01 ***p<.001

4.3.2 노후준비가 신체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Table 6의 모형 1단계는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신체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2단계는 통제변수와 노후준비도가 신체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모형 1단계에서 신체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2단계에서 신체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b=.147, p<.05), 기술/노무직(b=.379, p<.01), 정서적 노후준비(b=.221, p<.001), 신체적 노후준비(b=.417, p<.001)가 신체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무직보다는 기술/노무직인 경우에 그리고 정서적 노후준비와 신체적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을수록 신체적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3 노후준비가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Table 7의 모형 1단계는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2단계는 통제변수와 노후준비도가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모형 1단계에서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학력(b=.237, p<.01), 가계소득(b=.001, p<.01)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소득(b=.001, p<.05), 정서적 노후준비(b=.162, p<.001), 경제적 노후준비(b=.402, p<.001)가 경제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서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가 잘되어있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4 노후준비가 사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Table 8의 모형 1단계는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사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2단계는 통제변수와 노후준비도가 사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모형 1단계에서 성별(b=.332, p<.05)이 사회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인 경우에 사회관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사회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b=.246, p<.05), 정서적 노후준비(b=.512, p<.001)가 사회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인 경우에 정서적 노후준비가 잘되어있을수록 사회관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tirement preparation Effect of Physical satisfaction

Variables	Model 1		Model 2	
	b	t	b	t
Physical satisfaction				
(constant)	(1.087)	(2.141)	(0.304)	(0.654)
Gender	0.024	0.186	(0.029)	(0.255)
Age	0.003	0.419	(0.006)	(0.893)
Level of education	0.238	3.046	0.147*	2.066
Marital Status(married)	(0.241)	(1.053)	(0.232)	(1.142)
Marital Status(Divorce/Widowed)	(0.026)	(0.074)	0.054	0.173
Religion(Not Religious)	0.116	1.001	0.032	0.309
Job(Office)	0.162	0.999	0.176	1.228
Job(Tec./Labor)	0.299	1.670	0.379**	2.386
Job(Sale/Owner)	0.148	0.857	0.141	0.917
Job(Oper./Porf.)	0.293	1.673	0.168	1.077
Household Income	0.001	0.394	0.001	0.122
Children	0.060	0.678	0.097	1.229
Emotional Preparations for Aging			0.221***	4.667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0.006	0.121
Physical Preparations for Aging			0.417***	8.719
F	1.882***		8.336***	
R ²	0.062		0.271	
Adj R ²	0.029		0.239	
R ² Change	0.209***			

*Standard : Gender(M), Marital Status(single), Religion(Y), Job(Unemployment)

*p<.05 **p<.01 ***p<.001

Table 7. Retirement preparation Effect of Economic satisfaction

Variables	Model 1		Model 2	
	b	t	b	t
(constant)	-0.808	-1.637	-0.029	-0.063
Gender	-0.120	-0.972	-0.208	-1.846
Age	0.005	0.665	0.000	-0.010
Level of education	0.237**	3.109	0.115	1.618
Marital Status(married)	0.291	1.310	0.115	0.566
Marital Status(Divorce/Widowed)	-0.086	-0.255	0.013	0.043
Religion(Not Religious)	-0.054	-0.478	-0.112	-1.084
Job(Office)	0.099	0.628	0.105	0.730
Job(Tec./Labor)	0.047	0.268	0.054	0.338
Job(Sale/Owner)	0.050	0.294	0.088	0.572
Job(Oper./Porf.)	0.239	1.404	0.181	1.163
Household Income	0.001**	2.727	0.001*	1.762
Children	-0.103	-1.202	-0.044	-0.563
Emotional Preparations for Aging			0.162***	3.440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0.402***	8.033
Physical Preparations for Aging			-0.007	-0.139
F	4.020		8.852	
R ²	0.125		0.283	
Adj R ²	0.094		0.251	
R ² Change	0.159***			

*Standard : Gender(M), Marital Status(single), Religion(Y), Job(Unemployment)

*p<.05 **p<.01 ***p<.001

Table 8. Retirement preparation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Variables	Model 1		Model 2	
	b	t	b	t
(constant)	-0.043	-0.083	0.340	0.727
Gender	0.332*	2.546	0.246*	2.165
Age	-0.006	-0.763	-0.004	-0.572
Level of education	-0.025	-0.306	-0.133	-1.854
Marital Status(married)	-0.157	-0.667	-0.191	-0.934
Marital Status(Divorce/Widowed)	-0.357	-0.995	-0.229	-0.738
Religion(Not Religious)	0.101	0.844	0.040	0.387
Job(Office)	-0.036	-0.218	0.057	0.396
Job(Tec./Labor)	-0.040	-0.216	0.054	0.338
Job(Sale/Owner)	-0.120	-0.675	-0.168	-1.086
Job(Oper./Porf.)	0.200	1.110	0.068	0.434
Household Income	0.000	0.304	0.000	-0.107
Children	-0.018	-0.200	-0.006	-0.078
Emotional Preparations for Aging			0.512***	10.752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0.004	0.081
Physical Preparations for Aging			0.042	0.868
F	1.523		9.367	
R ²	0.051		0.295	
Adj R ²	0.018		0.263	
R ² Change	0.244***			

*Standard : Gender(M), Marital Status(single), Religion(Y), Job(Unemployment)

*p<.05 **p<.01 ***p<.001

5. 결론

본 연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중장년기의 노후준비가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해서 서울과 경기주변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4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함의와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누구나 은퇴이후의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며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관심을 기울인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연구는 개인별 삶의 형태나 주요 관심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노년기 관심분야로는 건강분야, 재무분야, 관계분야, 여가분야, 근로분야, 교육이나 봉사분야, 손자녀 육아분야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들 여러 분야 중에서 본 연구의 연구결과 노후준비 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로 확인된 분야는 정서적 분야, 신체적 분야, 경제적 분야, 사회관계 분야 등 4가지 분야이다. 즉 이들 4가지 분야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만 있다면 노년기는 행복하다

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노후준비 분야도 개개인별로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연구결과 노년기 삶의 만족도 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로 확인된 노후준비 분야는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정서적 준비 등 3가지 분야이다. 즉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들 3가지 분야에 대한 노후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연구결과 노년기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공통으로 반드시 필요한 노후준비분야는 ‘정서적 노후준비’로 나타났다. 이는 역할상실로 인한 고독감이나 우울감의 증대, 자존감 하락 등 정서적 문제가 노년기에 나타날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으로, 생애전환기별 노후준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노년기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를 한다면 너무 늦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또한 노후준비 교육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적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신체적 노후준비나 노후의 고독감, 자존감 상실, 우울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노후준비 등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그리고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노후준비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전문분야라 할 수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 향후 예측되는 문제발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등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정책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끝으로 생애전환기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년기의 중요성과 노후준비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대학의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종교단체나 지자체 운영의 각종 강좌프로그램에 노후준비 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기관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 [1] Bureau of Statistics, future population projections (2010-2060), Bureau of Statistics, 2011.
- [2] M. S. Kim, J. W. Ko, "The Effects of Capital and Ecological Variables on Volunteer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1, pp. 237-248,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1.236>
- [3] Yonhap: <http://www.yonhapnews.co.kr/dev/html>, 2015. 01. 21.
- [4] Kyunghyang: http://news.khan.co.kr/kh_news/art_print.html artid. 2013.01.29.
- [5] S. S. Shin, S. I.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Leisure Activities,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Vol. 12, No. 3, pp. 173-189, 2010.
- [6] Chen, C., Aging and life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54, No. 1, pp. 57-79, 2000.
DOI: <http://dx.doi.org/10.1023/A:1007260728792>
- [7] Lachman, M. E., Development in middle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5, pp. 305-331, 2004.
DOI: <http://dx.doi.org/10.1146/annurev.psych.55.090902.141521>
- [8] Havighurst, R. J., Developmental Takes and Education, NY: David Mckay Co, 1972.
- [9] Baltes, P. B., & Baltes, M. M.,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1-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10] Neugarten, B. L., & Havighutst, J. R., & Tobin, S. S.,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 16, No. 2, pp. 136-138, 1961.
DOI: <http://dx.doi.org/10.1093/geronj/16.2.134>
- [11] C. J. Park,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the Middle and Old-Aged and Their Determina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0, No. 3, pp. 275-297, 2008.
- [12] S. H. Kim, "A Study on the Preparation among the Workers for Old Age- focused on the Kongju city", M. 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Kong Ju National University, 2009.
- [13] I. S. Kim, "A Study on Middle-Aged Women's Provisions for their Old Age", M. A.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2004.
- [14] M. S. Seong, "A Study on Middle-Aged Women's Provision and Measures for Old Age- Centering on Ulsan", M. 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s Dongguk University, 2004.
- [15] S. Y. Lee, "A Study on Determinants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Among the Elderly Who are Residing in the City Area",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28, No. 1, pp. 205-224, 2009.
DOI: <http://dx.doi.org/10.18284/jss.2009.06.28.1.205>
- [16] Y. S. Cho, G. S. Seung, "An Empirical study on Poverty and It's Determinants by Age Groups in Korea",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Vol. 23, No. 3, pp. 101-124, 2007.
- [17] K. P. Lasher and P. J. Faulkender,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Vol. 37, No. 4, pp. 247-259, 1993.
DOI: <http://dx.doi.org/10.2190/1U69-9AU2-V6LH-9Y1L>
- [18] S. J. Lee, "The characteristics of old age preparation of Korean Adults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147, pp. 72-80, 2009.
- [19] Y. S. Kang, "A Study on the Middle-aged People's Preparation for Old Age: Focused on Gun-po city", M. A.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2005.
- [20] J. O. Ko, J. S. Kim, "A study on Life style and preparation behavior for old age life of middle-aged female consumer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Vol. 5, No. 3, pp. 17-39, 2009.
- [21] J. M. Cho, "A Study on Elders' Leisure Activities, Acknowledgement on the Old Age and Self-esteem", M. 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Yeungnam University, 2009.
- [22] Barrow, G., Aging, the individual and society(5th), St Paul, MN: West Publishing Company, 1992.
- [23] J. K. Park,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 Theoretical Model and Its Empirical Test",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2008.
- [24] Y. J. Ko,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Motives and Life Styles of Old People in Sports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effects of participation satisfaction, service satisfaction and self esteem",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2008.
- [25] M. S. Chung, "Age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lif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8. No. 4, pp. 87-108, 2005.

- [26] S. H. Park, "Ready to retire studies on the effects on quality of life factors", M. 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ea University, 2010.
- [27] H. J. Lee, "A study on Influence about Seniors' quality of life with Preparation for Incom after retire", M. 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Seoul, 2008.
- [28] J. S. Kim, "The Effects of Life style on Preparation for Middle and Old Age and Life Satisfaction",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2010.
- [29] S. H. Cho, "Elderly Men's Degree of Satisfaction with Life in Relation to the Level of Retirement Preparation",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BaekSeok University, 2010.
- [30] K. J. Lim, "Effects of the Middle Aged Preparation for Old Age on Their Middle Age Life's Crisis-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M. 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2.
- [31] G. S. Leem, "Office Workers' Understanding and Preparation about Old-Age Life in Comparison with Their Satisfaction in Present Life - Centered on Office Workers in General Hospitals of Daegu City", M. 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2007.
- [32] Cohen, S., & Hoberman H. M.,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3, pp. 79-125, 1983.
DOI: <http://dx.doi.org/10.1111/j.1559-1816.1983.tb02325.x>
- [33] Kaplan, M., *Leisure: Theory and policy*, NY: John Wiley, 1975.
- [34] Mueller D. P., *Social networks: A promising direction for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of the social environment to psychiatric disorder*,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14, No. 2, pp. 147-161, 1980.
DOI: [http://dx.doi.org/10.1016/s0271-7123\(80\)80034-4](http://dx.doi.org/10.1016/s0271-7123(80)80034-4)

하 규 수(Kyu-Soo Ha)

[종신회원]



- 1998년 6월 : 미국 Touro 법과전 문대학원 졸업(J.D.)
- 1999년 6월 : 미국 Georgetown 법과전문대학원 졸업(LL.M.)
- 1998년 8월 : 미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 연방변호사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창업, 벤처경영, 경영전략

진 주 영(Ju-Yong Jin)

[정회원]



- 2014년 2월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노인복지학과(노인복지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노인복지, 벤처경영